부시 "선거 참패 공유" 럼즈펠드 전격 경질

새 국방에 게이츠 前 CIA국장 지명

이라크내 미군철군등 정책변화 예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 지난 8일(현지 시간) 이라크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해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 등 일각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은 "2009년 임기말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공화당의 선거패배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이라크에서 진전이 없는데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투표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또한 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라크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려깊은 대화를 가진 뒤 럼즈펠드 장관과 나는 미 국방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럼즈펠드 장관 교체를 공식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사태와 2천800명을 훨씬 넘어선 미군 사망자수 등을 의식한 듯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지체돼왔다고 말해 이라크 정책 실패를 시인하기도 했다. 럼즈펠드 장관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철군 가능성 등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게이츠 전 국장이 참신한 견해와 훌륭한 관리경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의 선거패배가 곧바로 이라크 미군의 조기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11·7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주지사에 이어 8일 막판 경합지였던 버지니아주 상원선거에서도 승리를 확정, 상원까지 완전 장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까지 버지니아주 상원선거의 최종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선거를 공식 종료하지 못했으나 총 134개 선거구의 선거관계자들과 접촉해본 결과 민주당의 짐 웹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앨런 후보에게 최종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친민주 성향 무소속 2명을 포함해 상원의석 51석을 확보했고, 435명 전원을 새로 뽑은 하원선거에서 총 232석을 확보, 과반선인 218석을 훨씬 넘어섰다. 이로써 민주당은 12년만에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를 석권,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의회 권력을 되찾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가 실시된 36개주 가운데 무려 20개 주에서 승리, 전체 50개 중 28개 주를 차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개숙인 남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후 8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를 떨군 채 퇴장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CIA서만 26년…탁월한 '정보맨'

■신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조지 H. W. 부시 전대통령 시절인 1991~1993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내는 등 CIA에서만 26년을 근무한 정보맨이다.

부시 대통령은 8일 그에 대해 "진지하고 굳건한 지도력을 지녀 미국의 당면한 도전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조정 역할을 해낼 것"이라면서 "생생한 시각과 훌륭한 관리 역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캔자스주 위치토 출신인 그는 미국보이스카우트의 최고 영예인 '이글 스카우트'(Eagle Scout)상을 수상할 정도로 어려서 부터 리더십을 키워왔으며 윌리엄앤 메리 대학 졸업후 인디애나 대학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조지타운대에서 러시아 역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시절 CIA에 채용돼 정보 분석가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국가안보회의에서 4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것외에는 줄곧 CIA에서 컸다. /워싱턴=연합뉴스

전작권·북핵 대응 등 대변화 예고

■美 민주 압승 '한반도 정책' 어떻게

11·7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이처럼 12년만에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 패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 국방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게이츠 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 대외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럼즈펠드 경질은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철군 가능성 등 이라크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그가 주도해온 주한미군 철수 및 재배치, 전시작전권 환수, 북핵문제 대응 등 미국의 대 한반도 국방정책에 변화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미 행정부내 대표적 강경파인 딕 체니 부통령을 유임시킴으로써 대 한반도 정책에 당장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기는 힘든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부시정부, 北 고립정책은 잘못"

■클린턴 前대통령, 대북정책 비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를 미국인들이 '경직된 이념정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고 8일 캐나다 통신(CP)이 보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유대인 기금모집 만찬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차단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려 한 것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른 것을 상기시키며 "상대방을 악(evil)으로 규정해 놓고 한 잔 하자고 초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것이 부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의 관심과 식량·에너지 같은 필수품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대화채널만 열리면 북한 핵 문제는 1년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핵무장 발언, 아소 외상 파면해야"

日 야당, 총리에 요구키로

일본의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등 야 4당은 8일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갖고 핵보유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을 파면하도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당은 조만간 당 간사장들이 총리 관저를 방문, 문서로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야당측은 아소 외상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부될 경우 국회에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참 양원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가 신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신임안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내각 대변인인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지키는 입장이며, 아소 외상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야당측의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일본 외교의 사령탑인 아소 외상은 집권 자민당의 정책 책임자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조회장과 함께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반석 NO·쿠바산 시가·대형 재털이…

'흡연자 전용기' 곧 뜬다

흡연자용 항공기가 곧 운항된다.

'골초'를 위한 국제항공사인 스민테어의 창립자인 알렉산더 쇼프만(55)은 기내 전 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한 항공 프로그램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영업을 개시한 스민테어는 통상 55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잉 747기를 138석으로 개조해 일반석은 없이 각종 흡연자용 서비스를 갖춘 1등석과 비즈니스석만으로 운항할 계획이다. 이 항공기 탑승 승객은 제복을 차려입은 승무원들로부터 쿠바산 시가를 제공받아 피울 수 있으며, 기내식으로 캐비어도 제공받는다. 물론 각 좌석마다 대형 재떨이가 설치되며 승무원의 기내 흡연도 가능하다.

넓은 공간을 활용해 기내에 면세품을 판매하는 라운지도 마련된다. 가격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일본 도쿄까지 1등석의 경우 1만유로(1천193만원 상당), 비즈니스석은 6천500유로(776만원) 책정할 예정이라고 쇼프만은 전했다.

그는 연 매출이 5억유로에 달하고 운항후 첫 12개월 후인 내년 10월까지 1억 2천만 유로의 세전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쇼프만은 장거리 여행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금하는 항공기를 비싼 돈을 내고 타니는 불편을 겪다가 흡연자용 항공기 운항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흡연에 관대하지만 독일의 경우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광견병' 골치 中 베이징시

"가구당 개 1마리만 키워라"

중국 당국이 한 가구 한 자녀 양육에 이어 베이징에서 가구당 한마리의 개만 사육하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제약은 광견병을 뿌리뽑기 위해 내려진 조치로 지난 7, 8월 광견병 퇴치를 위해 수많은 개를 도살한 캠페인에 이은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수도 베이징은 9개 지역에서 가구당 한마리의 개만 기르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이들 9개 지역에서는 "단지 한마리의 애완견만 허용되고, 위험하고 큰 개들은 금지될 것이며, 허가받지 않은 개들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될 것"이라고 신화는 전했다.

지난 9월 한달 동안만 중국 전역에서 318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했으며 이 병은 중국에서 꾸준히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통계가 발표된 2004년에는 2천651명의 광견병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베이징=연합뉴스